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 사신 길2

압록강을 건넌 사신 일행은 삼강(三江)으로 나아갔다. 삼강은 압록강 지류로 강폭이 평안도 청천강만 한 강이었다. 7월 중순 불볕더위가 정수리를 내리찍듯 했다. 노비들은 옷옷을 훌렁 벗어버린 채 말을 탔다. 노비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말안장 뒤에는 상전의 가죽상자는 물론 미투리들까지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김명원이 김억추에게 눈짓을 했다. 김억추는 말고삐를 잡아당기며 김명원에게 다가갔다.

김명원이 말했다.

“황도를 가는 길에 노숙을 자주 할걸세.”

“강을 여러 개 건넌다고 말씀하셨지라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노숙할 텐데 그때마다 중국말을 좀 배워두게.”

“영님허졌습니다.”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네. 중국말을 몰라 병어리로 황도까지 오간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지.”

“필담 허는 요령부텨 배와불졌습니다.”

“자네는 누구한테 글을 배웠나?”

“청련(靑蓮) 연안 이씨, 후(後)자 백(白)자 선상님한테서 배웠지라우.”

“청련이라면 월출산의 대유(大儒)가 아니셨는가?”

“선상님이 사신 박산마실서 지도 살았그만요.”

김억추의 말은 사실이였다. 이후백은 경상도 함양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고 16세에 외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강진 작천 박산촌의 외갓집으로 왔던 것이다.

“청련 선상님께서 과거 급제하시어 출사하기 전, 공께 지가 대여섯 살에 천자문을 짚끔 배웠고, 선상님께서 승문원 박사로서 거시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시어 사가독서하시실 때 글을 열심히 배웠는디 지가 열한 살쯤이었그만이라우.”

사가독서(賜暇讀書)란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등 실력이 발군인 젊은 문신들을 뽑아 특별휴가를 주어 고향으로 보내 독서하거나 공부하게 하는 제도를 뜻했다. 사가독서 중에도 대부분의 문신들은 고향에서 강학을 열어 향리학동들을 가르쳤는데, 김억추가 이후백에게 사서삼경의 기초를 배운 것도 그와 같은 경우였다.

재작년에 별세한 이후백은 월출산이 낳은 호남의 대유였다. 향시에서 장원하고 사마시 합격한 뒤,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주서, 승문원 박사, 호남지방 암행어사, 이후 홍문관 전한,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 사서(司書), 사간원 정언, 병조좌랑, 동부승지, 예조 참의, 홍문관 부제학, 이조 참판, 형조 판서, 외직인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내직인 호조 판서를 제수 받아 돌아왔지만 59세 나이에 별세한 이후백은 김억추에게 충효의 도리를 깊이 심어준 스승이었다.

“한문 실력이 있으니 필담은 요령을 배우기만 하면 되겠구먼. 내가 역관을 붙여줄 테니 틈나는 대로 배우시게.”

“대감님,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은 없네. 내 군관이 똑똑해야 나는 물론 일행 모두가 편해지기 때문이네. 자네 선조는 어떤 분이신가?”

“고려개국 공신 1세조 김근검의 19세손이자, 고려 공양왕 경연 참찬 김린(金潏)의 6세손이며 부친은 충(忠)자 정(貞)자그만요.”

김억추의 고조부터는 모두 무장들이었다. 고조는 침절제사를 지낸 김극중이고, 증조는 훈련원 첨정을 지낸 김령이고,

조부는 상장군을 지낸 김우필, 부친은 한량으로 정로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째서 훌륭한 대유 문하에서 글을 공부하고서도 무과에 응시하였는가?”

“나라에 이 한 몸뚱이 바치고자 허는디 문무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사신 일행은 삼강(三江)에 다다랐다. 명나라 뱃사공들은 삼강을 애라하라고 불렀다. 그런데 압록강 지류인 삼강은 뜻밖에도 맑았다. 삼강 쪽은 비가 오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수심도 낮아 말을 타고 건널 수 있었다. 김명원은 마두에게 사신 일행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줄을 지어 건너자고 지시했다. 김억추는 삼강이 자신의 고향집 앞으로 흐르는 금강천 같다고 생각했다. 월출산 산자락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금강천으로 흐르다가 구강포와 접한 탐진강에 합류했던 것이다.

김명원이 조금 전에 했던 대화를 마저 이었다.

“충절에 문무가 없다는 자네 말이 맞네. 자네가 별궁 정원에서 교룡기를 흔들었을 때, 전하께서 용력이 초륜하다고 자네를 칭찬했었지.”

김명원이 삼강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읊조렸다.

진실로 내가 그대를 보니 의기가 새롭고  
사방무사하여 태평한 세상(太平春)이로다  
지금 문득 그때의 일(試才)을 생각하나니  
전정(殿庭)에 뽑혀온 무장 중 으뜸이었네.

自我見君意氣新  
四邊無事太平春  
而今忽憶當時事  
薦達殿庭第一人

김명원이 시를 읊조리는 동안 기억추는 마음을 다잡았다. 성절사 정사에게 시를 받는다는 것은 일개 군관으로서 대단한 영광이었다. 가슴에 의기가 용솟음쳤다. 삼강의 투명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듯 심신이 개운했다. 고향에서 공부하다가도 정신이 흐려지면 집 앞으로 흐르는 금강천 검푸른 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곤 했던 것이다.

이윽고 사신 일행이 다 도착하자, 모두 말을 탄 채 삼강을 건넜다. 삼강을 일제히 도강한 뒤에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동했다. 구련성으로 가 하룻밤 노숙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름만 성이지 구련성은 폐허나 다름없다고 마두가 말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성입네다. 호랑이가 출몰하는 무서운 곳입네다.”

서장관이 마두의 말을 받았다.

“그래도 방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네.”

“다른 사절 때도 구련성에서 방물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네다. 게으른 노비들이 서둘러 오지 않는 탓입네다.”

중국 지리에 밝은 정사의 마두는 기가 살아서 자신 있게 말했다. 구련성은 땅거미가 지기 전에 도착했다. 말이 성이지 잡목이 우거진 산자락이나 다름없었다. 사신 일행은 편편한 곳을 찾아 숙영지를 정했다.

그래도 허물어진 성벽이 남아 가파른 뒤쪽은 안심할 수 있는 장소였다. 사신 일행 2백여 명이 자리를 잡자 마을이 하나 생긴 듯했다. 노비들이 부싯들로 불을 만드는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올랐다. 노비들 일부는 시냇가로 내려가 투망을 해서 고기를 잡아왔고, 일부는 의주에서 가져온 닭 수십 마리를 잡아 털을 벗겼다. 잠시 후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마두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며 화톳불 나뭇가지를 구해 오도록 노비들에게 시켰다. 화톳불은 두 가지 용도였다. 하나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고, 또 하나는 호랑이 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정사의 마두는 사신 일행의 숙영지 주위를 빙 둘러 화톳불 몇 십 개를 만들도록 조치했다.

그런 뒤 군뢰와 노비들을 불러모아놓고 불침번을 2교대로 정했다. 초저녁에서 자정까지가 1반 불침번, 자정에서 묘시까지가 2반 불침번이었다. 한 반의 불침번은 1백여 명 정도였다. 그런데 불침번은 화톳불의 화부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성을 지르곤 했다. 순찰을 도는 군관이 뿔피리를 불면 그에 따라 불침번 모두가 ‘와아 와아! 하고 큰소리를 냈다.

그 바람에 김억추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말았다.

김명원이나 서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김명원은 고삿이 들어 기침을 쿨럭쿨럭 해댔다. 김억추는 재빨리 강진 작설차를 큰 주발에 한 줌 담은 뒤 찻물을 붓고 군뢰에게 끓여 오도록 했다.



“고빨에는 강진 작설 발효차가 그만이지라우.”

“특효약이란 말인가? 쿨럭쿨럭.”

“두어 사발 드셔불른 깨끗하게 나서불 것입니다요.”

“강진 작설차라, 내 잊지 않겠네.”

사신 일행을 여러 번 따라다녔던 역관이나 의주의 군뢰, 노비들은 불침번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잘 잤다. 순찰을 나갔던 서장관의 비장이 달려와 ‘기상! 기상!’ 하고 소리쳤다.

그런 뒤 김명원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대감님, 수상한 놈들이 저 산모퉁이로 돌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군관과 군뢰들은 방비를 철저히 하라.”

“대감님, 수상한 놈덜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혼자 막아불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김억추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마두와 군뢰들을 일부 선발하여 구련성을 떠나 재빨리 잡목 숲속에 매복했다. 그리고 보니 구련성에서도 멀리 압록강이 보였다.

군뢰들은 의주 관아에서 뽑은 건장한 장정들이었다. 사신 일행 중에서 끼니때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군뢰들이었다. 그들의 용모는 거추장스럽게 치장하여 단정치 못했다. 붉은 털의 삭모가 달린 모자에는 노란색 용(勇)자가 붙었고, 전투복의 좁은 소매 속에는 불그죽죽한 속적삼이 드러나 보였다.

어깨에는 주홍색 무명실을 주렁처럼 드리웠고, 허리에는 쪽빛 전대를 찻으며, 발에는 짚과 삼으로 엮은 미투리를 신고 있었다. 김억추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다.

‘거렁뱅이가 바가치를 두 개씩 들고댕긴다고 허드니만. 쫓쫓.’

숲속에서 한참을 매복해 있자, 명나라 병사복장을 한 장정들이 나타났다. 칼이나 활 없이 몽둥이를 하나씩 든 모습이 산적 같지는 않았다. 마두가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봉성 병사들에게 돈 받고 가는 품팔이 국경수비군입네다.”

“돈을 주고 국경 수비를 맏기다니 봉성 병사덜도 아조 폭 썩어부렀그만.”

“군관 나리님, 오래 전부텀 있어 왔던 관행입네다.”

김억추는 숲속에 매복해 있던 군뢰들을 시켜 품팔이 국경수비군을 붙잡도록 지시했다.

“돈 뗏 폰 땀시 풀려댕기는 저놈덜을 혼 쪼깐 내줘야졌다. 가서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두어라!”

“예, 나리!”

군뢰들이 일제히 숲길로 쫓아가 품팔이 국경수비꾼들을 포위했다. 그제야 김억추가 마두를 앞세우고 숲길로 나아갔다. 마두가 엄한 표정을 지으며 꾸짖었다.

“산적놈들아! 오늘은 못된 짓을 한 니들 손이 흙속에 파묻히는 날이다. 알겠는가!”

“나리, 우리들은 산적이 아니오. 국경수비군이오.”

“몽둥이를 들고 수비한단 말인가! 병사가 화살과 칼이 없다는기 말이 되네? 무기는 어드메 숨갔음메?”

우두머리 품팔이 국경수비군이 무릎을 꿇었다.

“품팔이로 국경수비를 해서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오. 산적이 아니니 그것만 믿어주시오.”

“우리 나리님 앞으로 날레 나와 칼을 받으라우!”

품팔이 국경수비군 우두머리가 마두의 지시대로 김억추 앞에 와서 머리를 내밀었다. 마두가 고개를 돌리고 김억추를 보면서 슬쩍 웃었다. 김억추가 말했다.

“우리는 황상 폐하를 알현하러 가는 길이다. 니덜도 황상의 백성이니 어찌 우리가 니덜을 해치겠는가. 앞으로는 앞곳은 일로 밥벌이허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야 써. 실수로 국경을 넘어오는 조선 백성이 있더라도 괴롭히지도 말고.”

“아이고, 나리님. 은혜를 갚겠습니다요.”

“아침을 묵지 못했을턴께 나를 따라오거라.”

김억추는 먼저 돌아와 김명원에게 낱낱이 보고했다. 김억추의 보고를 받은 김명원이 치하를 했다.

“잘했네. 우리도 봉성으로 가는 길인데 봉성사람을 건들 필요가 없지. 거기는 책문 안에 있는 마을이니 완전한 명나라 땅이거든.”

책문(柵門)이란 목책을 설치한 국경 출입문을 뜻했다. 사신 일행은 아침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한 뒤 금석산을 지나 책문으로 나아갔다. 책문 안의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이어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였다. 뒤늦게 방물을 가져오고 있는 일행이 보였으므로 금석산 고갯마루에서 산들바람을 쐬며 기다렸다.

아침에 혼을 내는 척하면서 끼니를 챙겨주었던 품팔이 국경 수비군들이 짐을 분산해 들고 왔다.

군뢰와 노비들이 그들과 헤어지면서 고마워했다. 김억추는 마두를 불러 돌아가려는 품팔이 국경수비군 우두머리를 멈추게 했다. 마두가 그를 불러 세웠다.

“웨이(位), 웨이(位)!”

“우리가 또 뭘 잘못했소?”

김억추가 그에게 청신환 두 알을 선물했다. 청신환의 위력은 곧 나타났다. 청신환을 보자마자 그가 넙죽 엎드려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러더니 사신 일행에게 책문 안까지 길잡이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책문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제법 까다로운데 사신 일행으로서는 행운이었다.

금석산을 내려서니 드넓은 목초지가 나타났다. 밭으로 개간 하려는지 나무뿌리와 바위덩이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풀밭에는 소똥이 널려 있고 수레바퀴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인근에 큰 마을이 있다는 흔적이었다.

이윽고 책문이 보였다. 길잡이가 된 품팔이 국경수비군 우두머리가 먼저 책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책문을 지키는 수직관원들이 나왔다.

정사의 마두와 역관들이 반갑게 그들과 악수를 했다. 그러면서 낮익은 구면이라는 듯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의주를 출발한 지 언제인가? 집안은 무고하신가? 예물은 무엇 무엇들인가?”

마두와 책문수직이 책문 안의 장군 및 미관말직의 관원들에게 줄 선물을 합의했는지 책문은 쉽게 열렸다. 책문 안부터는 실제로 명나라 땅이라는 것이 실감났다. 들이마시는 공기에도 느끼한 중국 냄새가 묻어 있는 듯했다.

책문 안길의 띠와 풀로 지붕을 인 관청 앞에는 어사와 장수, 관원 등이 계급의 순서대로 앉아서 사신 일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김명원과 서장관이 말을 타고 그대로 지나치자 명나라 관원이 서투른 조선말로 소리쳤다.

“무례하다! 어사님이 계신데 어찌 예의가 없는가!”

그래도 ‘조선국 성절사’ 라고 쓰인 깃발을 든 사신 일행은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때국놈들이 방귀뀌는 소리하고 있구먼.’

조선 사신이 만나고자 하는 분은 항상 폐하이지 변방 촌놈인 너희들이 아니라는 식이었다. 민가가 20여 채 옹기종기 모인 곳에 이르러서야 사신 일행은 멈추었다. 민가 가운데는 여관과 술집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사신 일행은 책문 마을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두어 식경 동안 쉬고서는 곧바로 봉성(鳳城)으로 떠났다. 책문에서 봉성까지는 30리 길이였다. 다시 봉성을 지나 요동반도를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이번에는 사찰에서 잤다. 사찰에서부터는 예측하지 못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태자하(太子河) 지류를 건너기 전에는 폭우를 만나 노숙하다가 겨우겨우 요동반도를 지났다.

드디어 요양(遼陽)에 입성했는데 압록강을 건너 지 무려 보름이나 됐다. 사신 일행은 요양에서도 하룻밤만 보낸 뒤 다시 북행하여 혼하(渾河)를 끼고 있는 심양으로 향했다. 김억추는 심양으로 가는 동안 역관에게 간단한 중국인사말을 배웠다.

심양은 평양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도시였다. 무엇보다 여관인 역관(驛館)과 술집인 식관(食館), 쌀집인 미점(米店)과 약방인 약점(藥店), 전당포인 당포(當舖) 등이 많은데 놀랐다.

특히 한양에서 보지 못한 당포는 물건을 잡고 돈을 빌리는 곳이었는데, 건물 입구에는 당(當)자의 큰 패가 걸렸고, 기둥에는 주련처럼 ‘무기는 받지 않는다’는 구절이 쓰여 있었다. 당포 안은 널따란 중정이 있어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했다. 마치 찻집 같은 분위기였다. 김억추는 심양에 머무는 동안 정사의 마두에게 본격적으로 필담하는 요령을 익혔다.

역관(여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驛館在哪裏

식관(술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食館在哪裏

술 한 잔 주시오. 給我一杯酒

하루 숙박비는 얼마입니까? 一天的住宿費是多少

자금성은 어디로 갑니까? 紫禁城何去何從

나는 조선인으로 중국에 온 사신입니다. 我是作爲朝鮮人來到中國的使臣

큰 배로 요하를 건너 며칠을 더 가자 드디어 산해관이 나타났다. 산해관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성문보다 웅장하고 장엄했다. 산해관의 출입도 봉성 책문처럼 세관원과 수비대원이 사신 일행을 일일이 대조하고 예물들을 점검했다.



그사이에도 군뢰들은 냇을 잃고 침을 흘렸다. 산해관 안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화사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다. 가까운 곳의 황도풍(皇都風)인 듯했다.

마침내 사신 일행은 황도 서문에 도착했다. 압록강을 건넌 뒤 33개의 역참을 거쳐 2030리 길을 지나온 결과였다. 정사와 서장관 등 관원들은 예를 갖추고자 관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뒤 서문으로 들어가 숙소인 조선관으로 향했다. 헤아려 보니 의주를 떠난 지 40여 일 만이었다.

김억추는 조선관 오른쪽으로 치솟은 전각과 누각의 수풀 같은 자금성을 보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시방 이것이 꿈이당가, 생시당가.’

황제가 조선 사신 일행에게 내리는 하루 음식은 푸짐하기만 했다. 정사에게는 매일 거위 한 마리, 닭 세 마리, 돼지고기 다섯 근, 생선 세 마리, 사흘마다 몽고 양 한 마리 등등이었고, 서장관은 정사의 반쯤을 지급했고, 아랫것들인 군뢰와 노비들에게는 매일 고기 반 근, 절인 채소 녀 냥, 식초 두 냥, 소금 한 냥, 쌀 한 되, 뽕나무 네 근을 보냈다.

그런데 명나라 음식은 대부분 기름에 볶고 익힌 음식들이어서 몹시 느끼했다. 김억추는 끼니마다 더부룩했으므로 가져온 강진 작설차로 속을 개운하게 했다.

정사와 서장관은 황제를 알현하는 날을 기다리는 동안 느긋하게 황도 거리를 활보했다.

여러 상점에 들러 문방사우 등 온갖 진귀한 물품들을 구경하며 돌아다녔다. 물론 김억추를 비롯한 다른 군관이나 역관, 마두, 군퇴, 노비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계속>